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and Some Recommantions for the Korean Church

김형갈*, 다니엘 감**

I. 서 론

인구는 한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있는 지표이며, 특히 교회의 성장과 쇠락과도 깊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조사인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4,971만 명이었는데,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5,107만 명으로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그러나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가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만 해도 2인 가구가 대세였지만 이번조사결과 네 집 중 한 집 꼴로 '나 홀로' 가구로 나타났는데, 미혼과 여성, 노인만 있는 1인 가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015년 14세 이하 유소년의 인구는 691만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7만 명이 줄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57만 명으로 무려 121만 명이나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2010년 68.0에서 지난해 역대 인구조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인 95.1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16).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쇠퇴와 교인의 감소로 이어져, 이러한 트렌드에 한국교회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게 하여준다. 이미, 최근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청소년층 교인의 감소 등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최윤식(2015)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독교 자체의 부흥동력 상실, 그리고 점점 지속되는 교회 이미지 실추 등으로, 2050년이 되면 현재 있는 교회 중에서 절반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살아남은 절반의 교회 중 90%는 교육부서가 전멸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인구구조의 추세로 간다면 2050년경에는 교인 중 60~70%가 은퇴자로 가득 찰 것이며, 농어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그 수가 80~9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인구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슬기(2015)는 인구변화가 사회현상에 주는 의미와 그 영향력의 정도를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요인이 인구수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인구구조가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라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해 접근하여, 인구변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인구구조는 변화속도가 빠르며 단절이 있음을 주목해 인구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박순창(2012)은 적합한 인구구조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민족과 타민족의 적정한 융합비율논의와 결혼과 출산의 분리, 셋째 갖기 운동 전개와 출산의무화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인구구조와 사회정책(이철우, 2006)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인구구조와 경제, 주택시장, 지방재정, 경상수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의 노인 복지(호태석 외, 2002) 등이 있으나 한국의 인구구조와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동향과 인구에 관한 성경적 배경을 고찰하고,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교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구에 대한 성경적 배경

영국의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이었던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 1766-1834)는 그의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 특히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인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맬서스 함정(Malthus trap)’으로 불리는 개념을 제시하며 인간에게는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증가가 있을 경우 그것을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6세기 후반에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빈민법(Poor Laws)’들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비평하기도 했다. 인구론 초판에는 식량 부족, 전쟁, 질병, 기근, 범죄들이 인구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강력한 번식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하고, 제2판부터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금욕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맬서스가 영국 국교회의 교구 주임 사제(parson)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맬서스의 비관적 이론에 비해서 성경은 인구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맬서스의 인구 증가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성경은 인구 조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인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다스리리게 하자”(26절) 하셨으며, 특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기록이 있다. 또한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이며 “이것이(즉, 자녀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세울 수는 없다.

인구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의 범죄 이전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므로 신구약 시대 전체를 아우르며 적용되는 축복 및 명령인 것은 사실이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및 축복은 신구약 시대 전체를 막론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 및 명령의 성취가 물리적인 것인지 또는 영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구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구약)과 이미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신약)이라는 의미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와 지혜, 예언서로 구성된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육체적 자손을 향한 특별계시이고, 그 반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부르시고 구원하신 교회를 향한 특별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2.2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

아담의 범죄(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정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을 만들어 생활하던 아브람을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창세기 12장) 다음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하신 축복은 일차적 성취(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 즉 이스라엘)와 이차적 성취(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즉 그리스도인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구 증가와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다는 공식을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만일 물리적 인구 증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및 블레셋 족속들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포함하여 다 몰살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 12장 이후 구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명령 및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향하신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 축복이 적용된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신약에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및 축복은 물리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한 영적인 축복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역사이지만,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2.3. 구약과 신약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은 부모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에베소서 6:4).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명령은 없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가능하면 본인과 같이 혼자 살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미 결혼하였으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낼 것을 권고하였다(고린도전서 7장).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이혼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신(4-9절) 후에 물리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성욕을 억제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다(11-12절).

창세기 38:8-10절의 오난의 경우를 들어 산아제한 또는 가족계획을 죄악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러나 오난의 경우는 임신을 방지하는 행위로 인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형이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수혼법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10절). 현대 사회의 문제는 인구 억제나 자녀계획을 빌미로 낙태를 하거나 불치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빌미로 안락사를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Ⅲ. 한국 인구의 동향

3.1. 한국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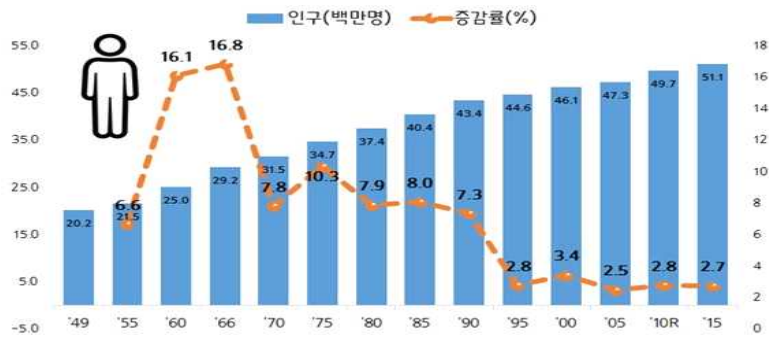
3.1.1 총인구와 성별분포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5,000만명을 넘어 5,107만명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61만명, 여자 2,546만명으로 남자가 15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2,5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가 몰려있어 2010년 49.2%에 비해 0.3%포인트(p)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인구의 24.4%(1,248만명)로 가장 많으며, 서울(19.4%), 부산

(6.8%), 경남(6.5%) 순이었으며, 인구증가율은 제주(9.9%), 경기(7.1%), 인천(6.1%) 순이었고, 인구가 감소한 곳은 서울(-1.6%), 부산(-1.1%), 대구(-1.0%)순 이었다.

〈 그림 1 〉 총인구 및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16

3.1.2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km²)당 509명으로 2010년의 497명보다 12명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방글라데시(1,237명/km²)와 대만(649명/km²)에 이어 3번째 인구 조밀국가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제곱킬로미터당(km²) 1만 6,364명이 거주해 가장 인구밀도가 높았고 강원도는 90명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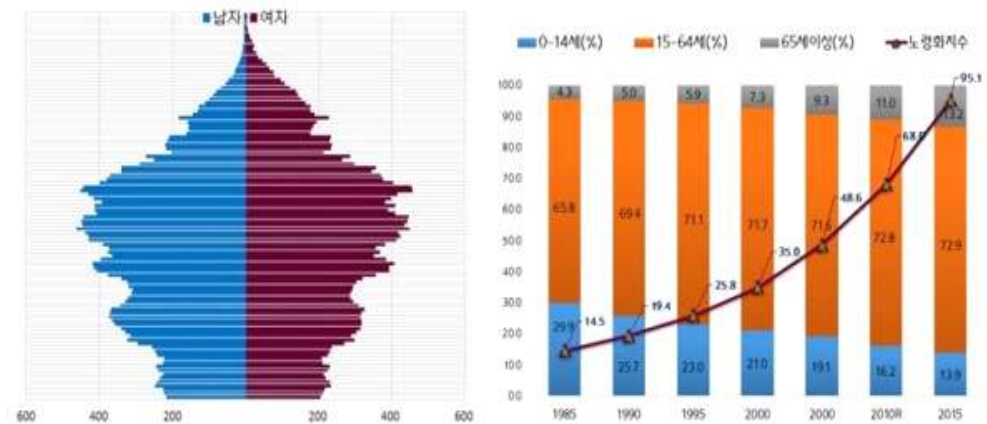
3.1.3 1인 가구의 증가

1990년 9.0%(102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5년간 18.2% 포인트(418만 가구) 증가하며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5,203,000 가구로 전체 가구 1,911만 가구에서 2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4,218,000가구보다 100만 가구가량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 4인 가구(18.8%), 5인 이상 가구(6.4%)의 순인데, 1인, 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한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타 지역 유학 등도 1인 가구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반면 4인 가구 비중은 2005년만 해도 27.0%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18.8%로 급감했다.

한편,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으로, 1990년(3.77명)의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0대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18.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4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직전 조사보다 줄어든 반면, 50대(14.2%→16.9%)와 60대(11.7%→12.8%), 70대 이상(15.3%→17.5%)의 1인 가구 비중은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1인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1.7%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제나 복지정책의 변환을 요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연령은 41.2세로 처음으로 40세를 넘어섰다. 특히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령별 인구구조도 40~50대 인구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 인구 피라미드(좌) 및 연령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우)



자료 : 통계청(2016)

3.1.4 고령화 경향

21세기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의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14%이상으로 구성 된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돌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섬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총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젊은이들의 탈 시골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생률이 저하되어 초등학교 등이 폐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하여 시골 교회는 아동층의 성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에는 노년층의 성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어촌교회의 현상은 점차 도시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1.5 외국인 증가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5,107만명 중 외국인은 136만명(2.7%)으로 집계됐다(통계청, 2016). 외국인 수는 2010년 96만명 보다 41.6% 급증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중국, 대만 포함)가 51.5%(70만 명)로 가장 많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향후 한국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다. 통계청(2016)의 ‘2016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외국인 취업자는 962,000명으로 전년대비 25,000명(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자 숫자 2,645만명 중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3.6%로, 2014년 보다 0.3% 증가한 것이다. 한편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5,000명으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6.3%)가 여자(33.7%)보다 2배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인(7.4%), 비한국계 중국인(6.6%), 북미(4.7%) 순이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실에 따르면(2016)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유학생 수는 96,357명으로 2015년 86,410명 대비 11.5%가 증가하였으

며, 유학생이 66,334명, 한국어연수가 30,017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적별로 중국 유학생이 60,934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63.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9,534명), 몽골(5,327명), 일본(2,633명), 우즈베키스탄(1,674명), 미국(1,392명), 인도네시아(1,391명), 파키스탄(1,218명), 인도(1,1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 관련 선교단체들과 여러 교회들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전략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3.2. 인구구조 변동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는 크리스찬 가정들의 출산율도 저하되어 교회의 자연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등의 주일학교가 쇠락하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 노인 성도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 일수록 노인 성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회가 역동적이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소망하지만, 교회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일학교 감소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감으로 다음세대를 잃어버리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역동성을 상실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교인의 감소로 인한 헌금과 헌신자 감소는 교회의 쇠퇴를 가속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V.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4.1. 전도와 양육 활성화

허준(2016)은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핵심가치이며 주님의 지상명령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도와 제자화, 재생산을 주장하였다. 아무리 인구구조가 바

뀌며,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다양한 전도훈련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드온의 삼백용사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배양해야 한다.

4.2. 융합적인 노인복지 사역 준비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한국교회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교회의 융합적인 노인 복지 사역의 준비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노인 복지 활동은 노인학교나 노인대학 운영을 통한 노인교육 강화와 경로잔치 등의 형태로 수행해 왔으며, 양로원, 요양원, 재가 노인 복지 등으로 확대하여 수행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교육이나 봉사 등의 차원을 넘어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가 융합되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노인사역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내 노인 전문 부서의 설치와 노인세대의 증가에 대비한 상담과 돌봄, 전문사역 등 노인 전문 요원 확충과 관련 시설의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3. 주일학교 및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 강화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 엔진은 주일학교 교육과 전도라고 할 수 있다. 한춘기(2011)는 교회교육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성장방안모색을 위한 연구에서 성경교육, 영성회복을 위한 영성교육 강화, 제자훈련 강화를 주장하였다. 사실 최근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주일학교 교육이 쇠락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때에 주일학교는 1주일에 2-3번씩 모여, 주일예배와 오후예배, 수요일예배까지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주일날의 주일학교 까지도 폐쇄된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에 젊은이가 사라지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교육과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고, 시대적인 변화를 이루르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및 젊은층들로 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

러므로, 한국 교회의 성장을 다시 회복하려면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교육을 강화하고, 주일학교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영적인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별교회 또는 연합적인 교사교육의 강화 등의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유년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멀티미디어와 IT기술을 활용한 성경적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일학교와 청소년 등 다음세대에게 확고한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4.4. 교회의 가정사역 강화

통계청(2016)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이혼률은 10.9%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6.9세, 여자가 43.3세로 점점 올라가 추세이며,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29.9%, 4년미만이 22.6%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등 세속화 물결 속에 사탄의 주된 공격은 가정 붕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자리부족, 가계부채 증가, 조기은퇴, 사업실패 등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파생된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가정위기에 영향을 주었고, 이혼율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전도와 선교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전도의 전초기지로서 가정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은 물론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사역 등 교회의 가정사역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4.5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 협력프로그램 강화

가정은 신앙공동체로서의 의미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계승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요셉의 가정은 두 개의 지파를 가질 정도로 성공하였는데, 요셉은 영성 뿐 아니라 인성, 도덕성, 윤리의식, 정직성, 사회성이 자녀들에게 본이되었으며, 신앙전수에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제사장 등은 자녀교육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께 최고로 불충한 왕이었다. 엘리 제사장은 망나니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키워냈다. 단순히 신앙전수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타락한 자녀들이었다. 이들 가정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김형길 외, 2016).

4.6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사역의 강화

신경구(2008)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자기중심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로 진단하고 선교만이 한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궁극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사역은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적 의미가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중 약 60% 이상이 대부분 대학졸업자이며,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이상에 재학 20-30대의 젊은이라는 사실은 왜 한국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후 그들은 자기 나라의 중산계층이 되어, 그 나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선교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또한 이들의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를 간접적으로 돕는 간접선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결코 한 개인에 대한 선교가 아니라 전체 집단 혹은 한 국가에 대한 선교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선교의 가능성으로 연결 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에도 관련단체들과 일부 지역교회들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의료봉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노동 상담 및 해결, 찬양선교, 레크레이션, 통역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들이 적극 후원하거나 협력하고, 교회의 전담 부서를 두어 봉사자 확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4.7 교회의 교회다움 회복

한국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이미지가 훼손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사랑과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김형길, 2014).

V. 결 론

한국 교회는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내부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인구구조의 저출산·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등의 거시적이고 외부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이 강조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높아진 이혼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한국교회는 불가피하게 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화 교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전도와 양육의 활성화, 융합적인 노인복지 사역 준비와 주일학교 및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회의 가정사역 강화,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 협력프로그램 강화, 외국

인 노동자와 유학생 사역의 강화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다스리리게 하자”(26절) 하셨으며, 특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잘 가르쳐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을 낳고, 신앙을 전수 하여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배와 친교, 교육, 봉사, 전도로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적, 재정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쇠퇴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도 향후 한국교회가 선교사역과 전도의 전략적 측면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계층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 등 교회의 대응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견해를 취합하지도 못했고, 실증연구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약점은 미래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형길, “교회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전략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Vol.12, No.2, 165-182, 2014.
- 김형길, 김재균, 김영숙, “어린이 신앙교육의 가정과 교회의 협력 방안 -자기결정성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2호, 173-192, 2016.
- 박순창, “사회, 문화, 융합영역;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유라시아연구 9권 1호, 249-271, 2012.

- 신경구,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 교회성장 No.3. 1-43, 2008.
-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7.
- 이철우,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 (서울:한국 학술정보), 2006, 31-33.
- 이호명, “교회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최슬기,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경제와 사회, No.106, 14-40, 2015.
-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서울:생명의말씀사), 2015.
- 호태석, 황정혜 공저, 교회와 노인 복지(안양:갈릴리 출판사), 2002.
- 한춘기, “ 한국교회의 성장방안 모색: 교회교육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 논총 vol.26, 129-151, 2011.
- 허준,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성장방향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Vol 40. 191-222, 2016.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